

KoNECT, 세브란스병원 및 일본 임상연구정보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와 세브란스병원(병원장 이병석)은 지난 8월 4일 세브란스병원에서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임상시험의 활성화와 임상시험 환경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좌: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 지동현 이사장, 우: 세브란스병원 이병석 병원장)

이번 업무협약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양질의 보건의로 관련 빅데이터의 임상시험 활용을 통해 R&D 연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임상시험의 효율성 및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됐다.

특히 이번 협약은 세브란스병원이 글로벌 수준의 임상시험 수행 및 임상 연구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넘어, 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의무기록(EMR)을 포함한 방대한 의료연구자료와 임상시험 역량을 결합함으로써, 국내외 임상시험 네트워크 및 연구자원의 연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KoNECT와 함께 신약 개발 경쟁력뿐 아니라 임상시험 대상자의 안전 증진을 위한 새로운 임상시험 패러다임을 위한 협력을 가동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주요 협약사항은 임상시험 역량 증진을 위한 정보 교류, 보건의로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을 통한 효율적 임상시험 수행 협력, 글로벌 임상시험 유치를 위한 협력, 임상시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활동 및 네트워크 강화, 임상시험 관련 워크숍 또는 심포지엄 등 학술활동에 대한 협력 등이다.

앞으로 KoNECT와 세브란스병원은 정보교류와 협력 등 다양한 상호협력을 통해 임상시험의 활성화를 이끌고, 국내 임상시험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 지동현 이사장은 “저희 본부는 앞으로 공유된 정보 활용을 통하여 다국가 임상시험 유치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과 환자중심 임상시험 환경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브란스병원 이병석 병원장은 “양 기관의 협약을 통해 한국이 아시아 내에서 임상시험 허브 역할로서 도약하는데 크게 일조하길 바란다면, 앞으로도 임상시험 역량 증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일본의 임상연구정보센터와 중개임상시험 인프라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와 함께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는 지난 20일 일본 교토 그랜드 프린스 호텔에서 일본의 임상연구정보센터(Translational Research Informatics Center, 이하 TRI)와 중개임상시험 인프라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oNECT NEWS



(좌: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 지동현 이사장,
우: 임상연구정보센터 후쿠시마 마사노리(Fukushima Masanori) 센터장)

TRI는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Japan Agency for Medical Research and Development, AMED) 산하의 중개임상연구 관리기관으로 기초연구 성과의 상업화를 위한 임상연구를 지원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의료 수준의 향상, 의료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됐다.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생명 과학 기반의 신약 개발에서 일본의 연구 성과가 국제적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임상시험과 임상연구를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민의 건강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교류 증대 및 임상시험 지원 인프라 강화를 통해 연구자, 정책, 규제 등 각 국의 임상시험과 관련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선진 신약개발 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중개임상시험과 연구자주도 임상시험의 효율성 및 글로벌 협력을 제고하고자 체결됐다.

앞으로 KoNECT와 TRI는 양 국의 임상 연구자와 임상시험 기관 및 ARO 등 임상연구 수행에 대해 협력하고, 글로벌 임상 시험을 촉진하기 위한 상호 운영 절차와 방법론 등의 개발과 함께 임상시험과 관련된 국가사업에 관한 자문 제공, 정책과 규제 등 임상연구 인프라에 관한 정보 교환 등 다양한 부분에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